관심사 독해: 어긋난 경기, 속죄의 논리, 코드와 뉴스의 배분

2026년 11월 18일 수집분

미국 경기지표와 성장 전망에서 시작해, 형벌의 논리를 벗어나려는 속죄론과 브라우저 안에서 서버를 실행하는 기술을 지나, 뉴스 노출을 누가 배분하는지를 묻는 독일 논쟁까지 이어 간다.

명목 판매가 숨기는 실질 둔화

Econbrowser — US Business Cycle Indicators: Industrial, Mfg. Production, Retail Sales

미국의 10월 소매판매는 겉으로는 예상보다 좋았다. 명목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늘어 시장 예상 0.1%를 넘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물가 상승분이 들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로 가격 변동을 제거한 실질 소매판매는 오히려 감소했고, 주유소 판매를 빼고 핵심 물가로 계산한 판매도 내려갔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어 예상치 0.2%를 웃돌았지만, 전체 산업생산은 전력과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 부진 때문에 하락했다.

수정치는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9월 소매판매가 나중에 상향 수정됐기 때문에, 10월 실질 판매가 줄었어도 한 달 전 시장이 알고 있던 9월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 경제지표는 발표 순간의 서프라이즈보다 방향과 기준을 봐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명목 판매 증가는 물가가 오른 결과일 수 있고, 제조업 호조는 산업 전체의 회복을 뜻하지 않는다. 한 달의 경기 판단은 헤드라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값, 수정치, 부문별 구성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로 해야 한다.

전망은 성장을 말하지만 위험은 남는다

Econbrowser — November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on GDP Growth

전문가 전망은 여전히 성장 쪽이다.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조사의 중간값은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4분기 GDP 성장률을 2.4%로 본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전문예측가조사(SPF) 중간값은 같은 기간 2.6%다. NABE 응답자들은 2026년과 2027년 기업투자와 성장 전망을 높였지만 고용 증가 전망은 낮췄고, 실업률은 4.2% 부근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의 아래쪽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응답자들은 에너지를 주요 물가 압력으로 꼽았고, 생산성 향상을 가장 큰 상방 위험으로 본 비율은 거의 절반이었다. 반대로 하방 위험의 1순위는 지정학적 갈등 확대였고, 응답자 절반은 위험이 아래쪽으로 치우쳤다고 답했다. 그래도 과반은 다음 침체가 2029년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성장 전망과 불안이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중간값은 기준 시나리오를 보여 주지만, 정책 결정에는 드물게 일어날 충격의 크기와 그때 치러야 할 비용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형벌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읽는 십자가

Experimental Theology — Can Mere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 Be Made Consistent With Classical Theism?

형벌대속론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그 최소 요소를 대신함, 형벌, 신의 승인으로 나눈 뒤, 이 셋이 변하지 않는 신을 말하는 전통적 유신론과 맞는지 묻는다. “대신함”에는 반사실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받지 않았다면 인간이 받았을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유신론에서 신은 영원히 사랑이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므로, 인간을 벌하려다가 방향을 튼 상태가 있을 수 없다.

형벌도 마찬가지다. 신이 용서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필연이 된다. 저자는 죽음을 신이 부과한 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신과 단절된 존재에게 닥치는 객관적 결과로 읽는다. 십자가는 그 결과와 화해하는 사랑을 동시에 보여 주는 신현, 곧 신이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 설명에서 변하는 것은 신의 태도나 사랑이 아니다. 죄 이후의 인간 조건과, 그 조건 안에서 같은 사랑을 인간이 심판과 용서로 이해하는 방식이 바뀐다.

서버 없이 서버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기술

Simon Willison — Running the full server-side Datasette Python app in the browser with service workers and Pyodide

Datasette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새 Datasette Lite는 웹어셈블리(WebAssembly)와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Pyodide를 이용해 서버 없이 작동한다. 서비스 워커는 브라우저 안에서 웹 요청을 가로채 응답하는 기술로, 여기서는 실제 서버처럼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를 만들어 낸다. 각 브라우저 탭은 무작위 세션 식별자를 사용해 서로 다른 Datasette 환경을 섞지 않는다.

주소 하나로 특정 Datasette 버전과 플러그인,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다. SQLite 버전 비교를 위해서는 163개 버전용 파이썬 배포 패키지(wheel)를 웹어셈블리로 준비했다. 작성자는 5월의 AI 연구 시제품을 11월에야 충분히 이해해 운영 환경에 내놓았다고 밝힌다. 이 기술의 가치는 속도보다 검증 가능성에 있다. 버그가 있는 버전과 고친 버전을 각각 주소로 열어 비교할 수 있으면, 개발자와 이용자가 같은 현상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 동시에 링크가 문서가 아니라 실행 환경이 된다는 뜻이므로, 어떤 코드와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주소가 드러내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언론 다양성을 누가 정하는가

Norbert Häring — Journalistenverbände stützen Regierungspläne, die Verbreitung von Medieninhalten im Netz staatlich zu lenken

독일 디지털미디어 조약 논쟁은 정부와 플랫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언론사와 언론인 단체가 우대 규칙을 지지하면서, 뉴스 다양성의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가 드러난다. 블로그가 전하는 초안 설명에 따르면, 주정부 측이 준비하는 디지털미디어 국가조약 2부 초안에는 대형 플랫폼이 노출하는 콘텐츠의 최소 20%를 관청이 정한 “다양성 촉진” 언론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방안이 있다.

블로그의 독해에 따르면 독일기자협회(DJV)는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정보·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콘텐츠를 분모로 삼아 20%를 계산하는 쪽을 지지한다. 정보 콘텐츠 비중이 낮은 플랫폼에서는 이 방식이 기존 언론사의 노출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 기자노조 측은 단체협약 준수를 우대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수치와 계산 방식은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니라 초안과 입장문에 대한 비판적 블로그의 설명으로 귀속해 읽어야 한다. 그 한계를 둔 채 보면, 논쟁의 핵심은 뉴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보다 노출 할당이 만드는 진입 장벽이다. 관청의 인증과 조직 규모, 단체협약이 경쟁력이 되면, 서로 다른 작은 매체가 경쟁하며 만드는 다양성은 줄어들 수 있다.

수집과 근거

집계는 10편이다. 분석 5편, 생략 5편이다. 선정 전에 수집된 10편을 모두 끝까지 읽었고, 분석한 5편은 피드 본문과 원문 페이지의 앞·중간·뒤 5개 구간을 대조해 전문 수신을 확인했다. 1개 피드는 XML 형식 오류로 이번 판에 포함하지 못했고, 방법 검토 대기 또는 차단 보류 중인 피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출처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us-business-cycle-indicators-industrial-mfg-production-retail-sales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november-survey-of-professional-forecasters-on-gdp-growth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1/toward-classical-theist-version-of-mere.html
- https://simonwillison.net/2026/Nov/17/datasette-lite/
- https://norberthaering.de/propaganda-zensur/dmstv2-djv-dju/